스데반은 솔로몬이 부러웠을까?

(사도행전 7:55~60, 아모스 3:1~15)

(사도행전 7장 55~60절)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모스 3장 1~5절)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3.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4.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스데반은 솔로몬이 부러웠을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스데반은 솔로몬이 부러웠을까?'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아! 내가 지금 너를 솔로몬 왕과 같은 상황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오늘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현재 IT산업을 통해 대단한 부를 거머쥐게 된 빌 게이츠나 마윈 혹은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조차도 당시의 솔로몬의 부로 환산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귀영화의 산더미 위에서 세상을 산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돈만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솔로몬 왕을 부러워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길을 따른 대표적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마음 채움을 끝까지 시도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은 마지막에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을 짐작할 때에 이 세상 부귀영화로 마음 채움을 끝까지 밀고 나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마음 채움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 시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조차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은 화려한 궁궐 안에서 살았지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필요치 않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 행복과 평강, 감사와 찬양을 위한 세 가지가 필요치 않게 됩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달라질 필요가 없고,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할 필요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누릴 때에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상태가 될 때에 다를 필요, 가질 필요, 생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줄여서 “다.가.생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에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다.가.생이 필요 없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를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생길 필요도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내 인생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을 통해 만드신 길은 어디서든지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내 길로 삼을 수만 있다면 기쁨과 만족, 행복과 평강, 감사와 찬양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조차 기쁨과 만족, 행복과 평강, 감사와 찬양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과 같은 마음가짐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앉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돌덩이를 들고 와서 차례로 머리를 내리찍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비록 나의 건강이 문제이고, 자녀가 문제이고, 배우자가 문제이고, 직장이 문제일지 몰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보다 더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기쁨과 만족, 행복과 평강,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기쁘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고 평강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고 감사와 찬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구원이나 의로움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 즉 기쁨의 소리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가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제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곧 기쁨과 만족 그 자체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과 스데반 집사님을 비교해봅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솔로몬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삶에서 주어진 상황에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왕궁에서의 삶과 순교현장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능하면 솔로몬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조금도 낫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와 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 감정이 부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솔로몬의 왕궁생활이 전혀 부럽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티가 들어가는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큰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 또한 행복과 평강 속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향한 괴롭힘에 타당한 이유가 없을지라도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음에는 행복과 평강이 생겨났고 용서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든 왕궁에서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에 대한 소화력 또한 강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솔로몬과 같은 세상적인 풍족한 삶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에 중독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풍족함이 주어질 때에 중독되고 취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알면서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립니다. 알면서도 망각하게 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일화를 참 좋아합니다. 설교 때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기준이 잘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 아닌 유일하신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행복과 평강을 느낄 정도로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러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기쁨과 만족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기쁨과 만족의 근원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믿음에 대한 고찰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남 왕국 유다 출신이었으나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 살펴본 것과는 반대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심을 믿지 않고 선민의 행세를 하던 백성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만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같은 의미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이 이 말씀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북 왕국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 때의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북 왕국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 200년이 흐르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번영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하여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영토를 되찾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으며 외교적으로도 주변국들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 왕국 유다 출신의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백성들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이 번영이야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행한 결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의롭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일이 잘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유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사자의 생태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상상해볼 수는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사냥에 성공하면 성취감으로 크게 포효합니다. 또 젊은 사자가 굴에서 사냥한 먹이를 먹으며 으르렁 거립니다.
여기서 사자의 우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소리입니

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에 성공했을 때에 포효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심판의 예언이 전해졌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서울 강남에 있는 초대형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분이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으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는 많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구를 담당하고 계신 부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목사님께서 십자가 복음방송설교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시지는 않고 한 마디로 "십자가 복음방송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여쭈었더니 교인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에 괜히 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성도님께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문제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크다지만 이단들의 교회는 더 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이단들의 사상 또한 담임 목사님의 내용보다 진리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진리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막는 설교는 가짜 설교입니다. 행복해질 권리를 선포하지 않는 모든 설교 또한 가짜 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상태로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을 똑같이 부르지만 진리의 기준은 모호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번영을 이루는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 예언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북 왕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기준을 전혀 다른 곳에 두었기에 자신들이 놓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이 악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고 있었기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납득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라는 말씀이 나타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솔로몬 왕의 삶을 추구함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부와 형통과 번영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믿었을 때에 어

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음에서 추구하던 대로 돈을 벌게 되고 일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될 때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축복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와 형통과 번영이 없기에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써의 바른 삶의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갈 모든 기독교인들은 잊지 말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과 평강의 기초가 되신다. 따라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비추어보면 아모스서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부자 되는 것, 부흥하는 것, 성공하는 것을 기쁨과 만족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일이 부흥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형교회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최전성기를 맞이한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예언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한 분만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심을 기준으로 삼아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의 기준이 포기된 상태에서 전해지는 설교 아닌 설교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울상이 된 집사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머리에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제시한 기준을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낫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제시한 기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한 행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기쁨과 만족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기쁨과 만족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형통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삼게 되었을 때에 그 바람대로 자녀가 형통하다면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고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린다면 오히려 더욱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기쁨을 얻는 것은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일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잘 풀린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고, 잘 안 될 때에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잘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죽고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죽을 뿐입니다.

잘될 때에 그것을 마음에 빨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는 안 풀릴 때보다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하는 편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심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를지라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로움을 얻기는커녕 복음사건을 통해 약속된 어떠한 은총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결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조차도 행복과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제시한 믿음의 기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솔로몬 왕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